

 <b>국토교통부</b> <small>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</small>	<h1>보도자료</h1>		
	<b>배포일시</b>	2014. 2. 27(목) <b>총 3매(본문2, 붙임1)</b>	
<b>담당부서</b>	물류정책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지종철, 사무관 임정환, 주무관 손상희 • ☎ (044) 201-3998, 4003
<b>보도일시</b>		2014년 2월 28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8(금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한중 복합운송 중국 강소성까지 확대!

### 강소성 연운항 개통 합의, 중국 진출 한국기업 물류비 크게 절감 기대

- 국토교통부(장관 서승환)는 '14.2.26(수) 중국 연운항시에서 한중 해상 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결과, 복합운송 적용항구로 연운항을 추가 개통하고, 운행구역을 강소성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.
- 한중 복합운송은 양국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작업 없이 피견인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방식(참고1)으로,
  -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, 전자부품 등 고가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활어 운송 등에 매우 유용한 수송방식이다.
- 복합운송 사업은 '10.12월 인천-위해 항로를 시작으로, 한국의 인천, 평택, 군산항 등 3개 항구와 중국의 위해, 청도, 일조, 석도, 용안, 연태항 등 6개 항구에서 총 7개 노선으로 진행 중이며,
  - 사업이 시작된 이래, 지금까지 총 554대의 트레일러가 상호주행하는 등 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.

-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강소성 전역으로 트레일러 운행구역을 확대하고 연운항 항구의 개통에 합의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,
  - 삼성전자, LG전자, 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강소성 내 고가물량 운송방식이 복합운송으로 전환되고, 국내 기업의 물류비용 및 시간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.
  - 뿐만 아니라, 환적작업 없이 화물을 운반하여, 강소성 내 물량이 많은 반도체 부품 등 충격에 약한 화물의 파손 위험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.
- 나아가 한중 양국은 트레일러와 화물의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, 양국의 운행허가증 양식을 통일·간소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기타 사항에서도 합의를 이루었다.
  - 이를 위해 양국은 연구주도 기관을 지정하고 올해 하반기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 트레일러의 운행구역이 확대되고 신규 항구가 개통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제4차 협력위원회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보고,
  - 향후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임정환 사무관(☎ 044-201-39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협정 및 1단계 의정서 체결

-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및 1단계 의정서 체결
  - '10.9.7 체결, '10.11.25 발효

□ 주요 내용

- '한중 복합운송'의 단계적 실시 추진(협정 제2조)
  - 1단계 피견인 트레일러 ⇒ 2단계 트랙터+트레일러
- 상대국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 조건(협정 제5조), 카보타지 금지(협정 제7조), 보험가입(협정 제8조), 관세담보(협정 제9조)
- 양국 운송차량은 협정 및 의정서 규정과 상대국 법령,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(협정 제10조)
- 협정 및 관련의정서의 집행 상황 평가 및 상호 관심사항 논의를 위한 협력 위원회 설립·운영(협정 제14조)
  - 적용 항구, 운행 구역, 연간 운행허가증 발급 건수 등 협의

□ 복합운송 방식

